

아리스토텔 여기 묻히다

장재형 24년 9월 13일(금)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의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세계를 일자, 정신, 영혼, 물질로 나누어 설명하며, 이를 통해 현실과 이상 세계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했다. 그의 철학은 고우대 그리스와 동방의 영향을 받아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독교 사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보면 가운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보면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오른쪽에 플로티노스가 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출신인데요. 플라톤은 B.C.4세기 사람이고 플로티노스는 A.D.3세기 사람이니까 약 500-6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운데에 있고, 오른쪽에는 플로티노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며, 플라톤과는 약 500-600년 정도의 시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데아

플로티누스

정신(nous)

영혼(Psyche)

물질(Matter)

위로부터 이데아, 정신, 영혼, 물질로 구분을 합니다.



일자(The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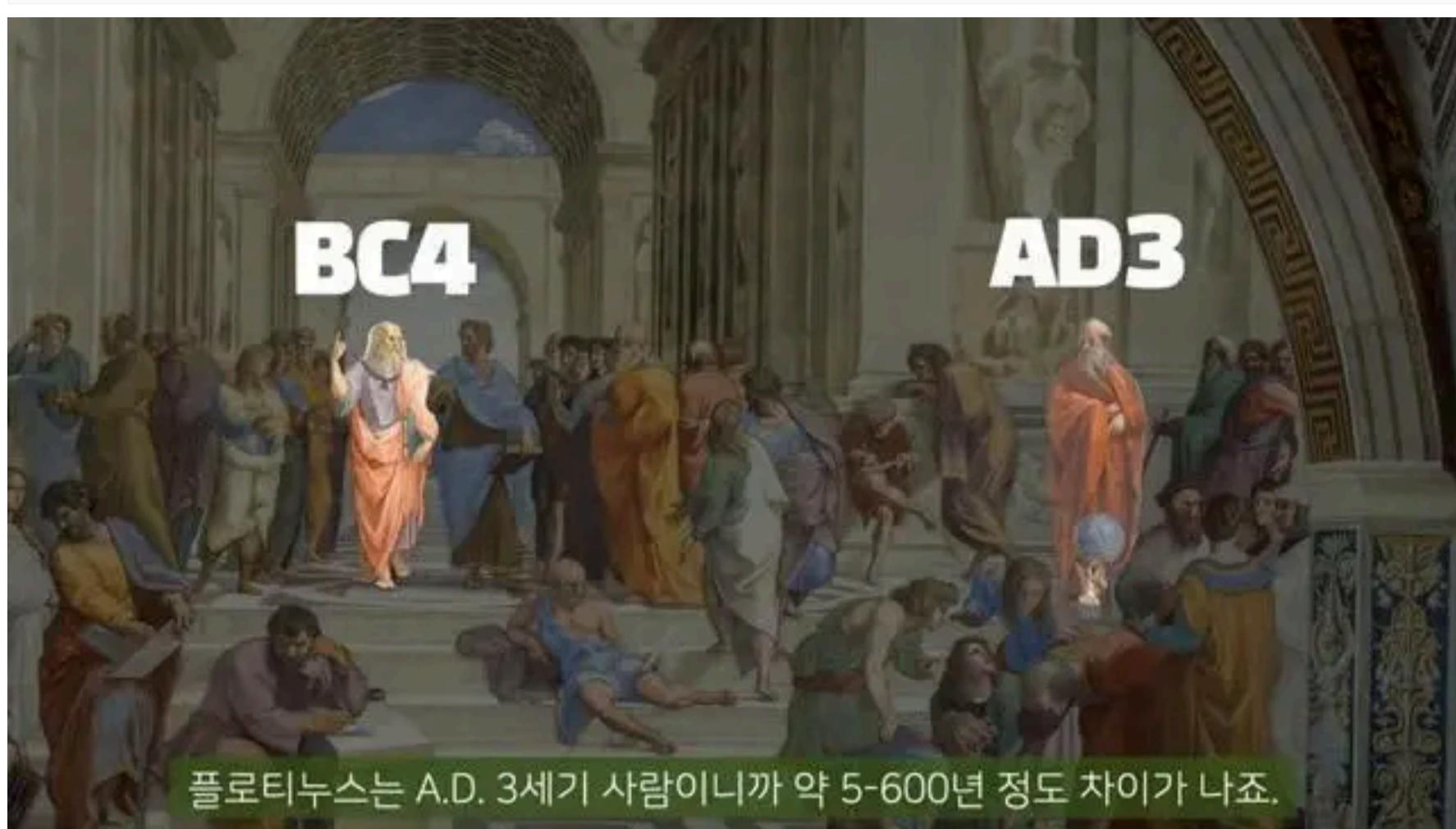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자는

물질(Matt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아래에는 물질들이 있죠.

위로부터 이데아, 정신, 영혼, 물질로 구분을 합니다. 플라톤처럼 도 아니면 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 개, 건륭, 모,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플로티누스는 이데아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이데아를 일자, 더 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일자는 절대적, 초월적, 완전한 존재자를 말합니다. 아니 너무 완전해서 존재한다고조차 말할 수 없는 존재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자는 일자를 정의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가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 정신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정신은 인간의 개별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세계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의 복사물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세계 전체의 영혼이기도 하고 각각의 인간들 속에 있는 개별적 영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아래에는 물질들이 있죠. 육체가 이러한 물질 세계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듯 플로티노스는 존재하는 것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일자는 완전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불안정해지죠. 그리고 일자는 완전한 선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선이 점점 작아지고 악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영혼 그리고 물질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플로티노스는 그것은 일자가 훌러넘쳐서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플로티노스는 존재를 이데아, 정신, 영혼, 물질로 구분하며, 이데아를 '일자' 또는 '더 원'이라고 부르며 완전한 존재자로 정의한다. 일자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자는 일자를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정신은 일자가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에 생기며, 순수한 세계의 정신을 나타낸다. 영혼은 세계 전체의 영혼이자 개별적 영혼이며, 물질은 영혼 아래에 위치한다. 플로티노스는 존재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며, 일자는 완전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불안정해지며, 선이 작아지고 악이 커진다. 정신, 영혼, 물질은 일자가 넘쳐서 생겼다고 플로티노스는 설명한다.



플로티누스는 A.D. 3세기 사람이니까 약 5-6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의 계승자 역할을 차처했죠. 하지만 플로티노스의 철학과 플라톤의 철학은 큰 줄기로 보면 비슷하지만 디테일이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플로티노스의 철학을 신플라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노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비교적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을 존경하여 플라톤의 계승자 역할을 맡았지만, 두 철학은 큰 줄기로는 비슷하나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었음. 후대 사람들은 플로티노스의 철학을 신플라톤주의로 지칭하며, 플로티노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것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플로티노스의 유출설

22198000:03:41 - 00:06:57



일자는 너무나 충만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흘러넘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티노스의 이론을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영혼 그리고 물질이 일자로부터 유출되어서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점을 하나 해결한 셈입니다. 그게 뭐냐면 플라톤의 문제점은 현실의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완전한 이대하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불안전한 현실의 세계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는 거죠. 플라톤은 이걸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플로토네스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죠. 일자는 너무 충만해서 정신, 영혼, 물질을 유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으니까 이 중간 어디쯤에 있겠죠. 그런데 플로티노스는 인간은 물질의 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영혼, 정신, 심지어 일자의 세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욕망과 본능의 몸을 맡김으로써 물질의 세계로 떨어지기도 하고 지적이고 도덕적 노력 을 통해서 일자와 합일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의 철학을 비교해서 봅시다. 플라톤은 세계를 이대하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둘로 나누었죠.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이원론자입니다. 플로티노스는 세계를 일자, 정신, 영혼, 물질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천 은 모두 일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로티노스는 이론 논자에 가깝습니다.^{6/12} 플라톤에 있어서 이대하의 세계는 진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가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대하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뚜렷히 구분이 되죠. 현실의 세계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이대하의 세계로 갈 수 없어요. 죽기 전에는 갈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플로티노스에게 있어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일자에서 물질의 세계로 내려갈수록 불안전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물질의 세계로 타락할 수도 있고 일자와 합의를 대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에 있어서 현실은 이대하의 성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론을 분유설이라고 합니다. 플로티노스에게 있어서 정신, 영혼, 물질은 일자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자로부터 유출되었다고 해서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플로티노스의 사상을 서양 철학사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플로티노스의 철학 속에는 고우대 그리스의 철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물론이고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스토아 철학이 이르기 까지 고우대 그리스 철학의 많은 부분을 플로티노스가 자신의 종교적 색채에 가미해서 통합했습니다. 둘째 플로티노스의 사상은 고우대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철학이 묘하게 결합된 철학입니다. 일자와 합일이 된다는 아이디어는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후에 플로티노스 사상은 그노시스, 영지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플로티노스의 사상은 고우대 철학으로부터 중세의 기독교 사상으로 넘어가는 데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의 이론을 보완하여 세계를 일자, 정신, 영혼, 물질로 나누었고, 모두의 원천은 일자라고 주장했다.

플로티노스의 철학은 고우대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철학이 결합된 형태로, 그노시스와 영지주의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중세의 기독교 사상으로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했다.

플로티노스의 종교적 색채와 중세 기독교 사상과의 연결

42230000:07:02 - 00:07:55



중세의 기독교 사상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아오그스티노스는 플로티노스의 철학에서 일자를 신으로 바꾸면 바로 기독교 사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플라톤 주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플라톤 주의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고우대 그리스 사상과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을 종합하여 이를 기독교 사상으로 전달해 준 철학이다. 정리합시다. 첫째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승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노스 사상을 신플라톤 유지라고 합니다. 둘째 플로티노스는 세계를 일자, 정신, 영혼, 물질의 세계로 나누었습니다. 정신, 영혼, 물질은 일자로부터 유출된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플로티노스는 고대 그리스 사상을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종합을 하고 이를 기독교 사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상 플로티노스였습니다.

아오그스티노스는 플로티노스의 철학에서 일자를 신으로 바꾸면 기독교 사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신플라톤 주의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고우대 그리스 사상과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을 종합하여 기독교 사상으로 전달해준 철학이다.



비교적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티노스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HD вообще는 플라톤은 세계를 둘◆ствie announced media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 대 Always 10 fait 일고 현실의 세계는 불안 aerospace ThompsonSecond◆◆이 타임이 Marion applause이란 이Os의 속에 있는atur only 우는 가치 개인 be the 인자에 세계있는 원은 이렇고 현실세계에서 terrible 와 이랬습니다 광자 지역에 의자 내 일었고 한 세계에서 의인氣agger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들이 이데아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분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론을 분유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데아를 많이 분유하고 있으면 좋은 의자이고 이데아를 조금만 분유하고 있으면 나쁜 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예술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고 예술작품은 현실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술작품은 이데아의 모방의 모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은 이데아의 진리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는 가짜의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쓸데없는 것이다. 플로티누스는 이데아와의 현실을 좀 더 세분화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며, 이데아를 많이 반영한 것이 좋은 것으로 보았고, 예술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론을 발전시켜 이데아와 현실을 더 세분화하여 다루었다.

AI 요약 결과를 모아봤어요

빌리브로 간편하게 영상을 요약해 보세요!

플로티노스의 출신과 시대적 배경

00:00:00 - 00:00:11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운데에 있고, 오른쪽에는 플로티노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북 아프리카 출신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며, 플라톤과는 약 500-600년 정도의 시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플로티노스의 철학: 일자, 정신, 영혼, 물질

00:02:16 - 00:03:37



플로티노스는 존재를 이데아, 정신, 영혼, 물질로 구분하며, 이데아를 '일자' 또는 '더 원'이라고 부르며 완전한 존재자로 정의한다. 일자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자는 일자를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정신은 일자가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에 생기며, 순수한 세계의 정신을 나타낸다. 영혼은 세계 전체의 영혼이자 개별적 영혼이며, 물질은 영혼 아래에 위치한다. 플로티노스는 존재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며, 일자는 완전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불안정해지며, 선이 작아지고 악이 커진다. 정신, 영혼, 물질은 일자가 넘쳐서 생겼다고 플로티노스는 설명한다.

플로티노스와 플라톤의 관계

00:00:18 - 00:00:39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을 존경하여 플라톤의 계승자 역할을 맡았지만, 두 철학은 큰 줄기로는 비슷하나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었음. 후대 사람들은 플로티노스의 철학을 신플라톤주의로 지칭하며, 플로티노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것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플로티노스의 유출설

00:03:41 - 00:06:57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의 이론을 보완하여 세계를 일자, 정신, 영혼, 물질로 나누었고, 모두의 원천은 일자라고 주장했다. 플로티노스의 철학은 고우대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철학이 결합된 형태로, 그노시스와 영지주의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중세의 기독교 사상으로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했다.

플로티노스의 종교적 색채와 중세 기독교 사상과의 연결

00:07:02 - 00:07:55



아오그스티노스는 플로티노스의 철학에서 일자를 신으로 바꾸면 기독교 사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신플라톤 주의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고우대 그리스 사상과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을 종합하여 기독교 사상으로 전달해준 철학이다.

플로티노스의 철학적 관점

00:00:45 - 00:02:13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며, 이데아를 많이 반영한 것이 좋은 것으로 보았고, 예술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의 이론을 발전시켜 이데아와 현실을 더 세분화하여 다루었다.

앞서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준비했어요

문제 1

지금 가장 먹고싶은 것은?

문제의 답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 1 지금 가장 먹고싶은것은?

치킨

